

## K-브랜드 혁신 제품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할 대표 품목으로 육성

- 뷰티, 패션, 라이프, 푸드 등 4대 소비재 분야 혁신 기업 200개사 발굴
- 글로벌 유통기업 협업 맞춤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지원, 수출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을 통해 국가대표 K-브랜드 품목으로 육성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5월 29일(금)부터 K-수출 전략품목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K-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K-컬처 열풍 등에 힘입어 전 세계 곳곳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뷰티 등 K-브랜드(소비재) 분야 혁신 제품들을 엄선해 글로벌 일류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 2024년 처음으로 뷰티와 푸드 분야 30개 기업의 수출 유망 제품을 선정해 지정했으며, 지난해에는 패션과 라이프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고 총 80개 기업 제품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.

이번 모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뷰티, 패션, 라이프, 푸드 등 4대 소비재 분야의 수출 품목들이 대상이다. 혁신성,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서면 평가와 외국인 소비자 대상 경쟁력 평가, 글로벌 유통기업과 전문가들의 제품 품평회 등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200개 내외 제품들을 K-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.

K-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국내 글로벌 유통기업 등 협력기관\*이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. 또한 수출바우처, 해외인증 획득, 해외 전시회·상담회 참가 등 정부 수출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K-브랜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이 최대 3년간 제공된다.

\* 올리브영(뷰티), 신세계백화점(뷰티, 패션), 무신사(패션), G마켓(라이프), 롯데마트(푸드)

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“뷰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온 중소 K-소비재 트렌드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”면서, “우리 중소기업의 K-소비재가 세계 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대표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K-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6월 25일(목)까지 진행되며,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판판대로 누리집(<https://fanfandaero.kr/>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동우	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철	(044-204-7505)
	주무관		전대호	(044-204-7507)	
	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글로벌도약팀	책임자	팀장	장인경	(02-6678-9710)

